

목포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로 예향도시 새 도약

목포문학박람회, 9월 14일~17일 문학관 일대 전시·행사·공연 등 6개 시립예술단, 지역 행사 예술 공연...5월부터 목포항구버스킹

목포시가 예향의 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구축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전국 최초로 예향의 명칭을 사용한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시가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예술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시민 일상속 예술이 꽃피우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전국 규모 대형축제와 지역 예술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처음 열린 문학을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박람회인 목포문학박람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 문학관을 테마로 개최된다.

전시, 행사, 공연,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목포

문학관 일대 원도심 등에서 열린다.

올해 2회째를 맞아 목포 시정 방향에 맞춰 청년·신진작가를 주테마로 운영한다.

목포시는 2025년 국제문화예술제 개최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또 대규모 행사 외에도 크고 작은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진다.

목포를 대표하는 6개의 목포시립예술단은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인다.

창단 40주년을 맞은 목포시립교향악단이 지난 2월 특별연주회를 개최한 데 이어 6개의 시립예술단이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문학박람회 등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예

술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2023 목포항구버스킹'은 오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 평화광장 등에서 열린다.

이 밖에도 목포시는 지난해 개최한 목포뮤직플레이어로 목포가 가진 음악적 자산과 차별성을 재조명해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중음악을 이끈 음악 도시임을 증명했다.

목포 뮤직플레이어는 올해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에서 '특별상'을 받는 영예를 얻어 지역의 문화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축제로 인정받기도 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역 예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목포의 상징인 예향을 만들겠다"며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경제와 문화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지난해 열린 목포 항구 버스킹 공연 모습. <목포시 제공>

신안군, 휴경지 활용해 주민-철새 '상생'

흑산면 예리·심리·사리마을 조·수수·봄동배추 등 재배 철새 먹이 주고 서식 지원 철새 10% 늘고 생태 인식 변화



마을 휴경지에 물러든 철새.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흑산면 예리·심리·사리마을 등에 진행 하고 있는 '휴경지 활용한 철새 먹이 공급사업'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사업대상지 모니터링 결과,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예년보다 사업대상지에서 서식하는 철새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먹이 부족으로 철새 관찰이 힘들었지만 사업을 시작한 이후 먹이활동을 하는 철새가 빈번히 관찰되고 있다.

신안군은 흑산면 일대에 철새보전과 주민들과의 상생, 마을 활성화, 소득증대 등을 위한 철새서식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철새의 서식을 지원하는 철새 먹이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의 휴경지에 봄철에는 조·수수를 2017년부터 288농가 25.8ha, 겨울철에는 봄동배추를 2021년부터 101농가 4.2ha 재배해 철새 먹이와 휴식처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조·수수 재배는 3월부터, 봄동배추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철새먹이 공급사업은 철새와 주민에게 상생의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휴경지에 철새 먹이를 재배해 소득증대로 마을에 활기가 띠고, 철새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철새먹이 공급사업은 새로운 생태환경문화가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지역을 가거도, 만재도, 태도, 대둔도 등 인근 섬까지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씨월드고속훼리, 4·3 희생자 유족 할인

제주도와 운임 감면 협약 헌혈 참여자에게도 혜택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주)씨월드고속훼리가 제주 4·3 희생자 유족 등에게 배상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목포-제주 간 등에 대형 카페리선을 투입, 운항 중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4·3 희생자 유족의 여객선 운임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으로 4·3 관련 유족들은 씨월드고속훼리에서 운항하는 전 노선(제주특정 목포 진도 우수영 추자항로)과 선박(5척)에 대한 여객 운임을 30%(동반 가족 4인) 감면받는다.

할인받기 위해서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씨월드고속훼리는 헌혈자를 위한 가차나눔 프로젝트도 선보인다.

승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헌혈 참여자에게 여객(평일 30%·주말20%)과 차량(20%) 요금을 할인해주는 업무협약도 제주혈액원과 체결했다.

씨월드 임직원들은 2021년부터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회장은 "다양한 형태의 협업사업으로 나눔의 가치를 전할 예정"이라며 "씨월드의 근본 설립 이념 중 하나가 가치경영과 환경보호인 만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사랑의 밥차, 연탄 나눔행사, 소년소녀 초정 만찬 음악회, 외국인 범죄 피해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 초청 투어, 복지재단 기부 등을 이어가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서해인재육성장학회, 불갑초에 3천만원

학생 45명에 장학금

불갑 서해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가 최근 영광 불갑초등학교 학생 45명 전원에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졸업생 출신의 독지가의 기부로 운영되는 장학회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재학생들에게는 매년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 졸업생 100만원을 지원해 대학기간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김승기 장학회 회장은 "출산률 감소와 줄어드는 학생인구로 인해 특히 농촌지역 학교의 유지가 어려운 가운데, 장학회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며, 아이들이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많은 학생들이

불갑초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철호 불갑초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믿음과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학교가 살아나야 지역 사회가 살아날 수 있기에 앞으로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불갑초는 매해 '꿈은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언리미티드((Unlimited)) 도전활동 등 학생들의 진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인수 학습의 특성을 살려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 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해인재육성장학회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지속적인 학생 유지를 위해 다양한 체험학습 및 인성 키움·나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스포츠' 해남

스포츠타운 등 기반시설 3곳 신축 383억 투입...내년까지 완공



해남군이 제2스포츠타운, 복합체육문화센터,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등 스포츠 기반시설 3곳을 내년까지 건립하며 지역민 스포츠 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우슬체육공원 실내트레이닝장.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스포츠 기반시설 3곳을 새로 구축해 지역민 스포츠 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군은 제2스포츠타운(삼산면 평활리)과 복합체육문화센터(해남읍 신안리),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3곳을 올해 착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남군은 이들 시설 건립에 모두 383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는 8.8ha 규모 제2스포츠타운이 올해 상반기 착공한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도비 43억원 등 181억원을 들여 지을 예정이다.

이곳에는 정식 규격 축구장 1면과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2스포츠타운은 우슬체육공원 내 스포츠타운 수요가 늘면서 조성이 추진됐다.

2스포츠타운은 대홍사, 숙박시설과 인접해 스포츠 마케팅·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해남군은 기대하고 있다.

복합체육문화센터는 해남읍 신안리 일원에 연면적 2540㎡,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내년까

지 완공된다.

13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인 특화형 체육관과 작은 도서관 등이 조성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해남읍 구교리에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하나로 근린생활형 체육관이 건립된다. 64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990㎡로 지을 계획이다. 생활체육 활동과 문화예술 행사를 함께

하면서 비상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된다. 이곳에는 체육관과 청소년 상담센터 등이 들어선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군민과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 회산백련지 자동차 야영장 새단장

무안군 회산백련지 자동차 야영장이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새롭게 단장한다.

군은 최근 전남도 주관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7억원을 확보했다.

군비 7억원을 투입해 모두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안 회산백련지의 오래된 카라반 시설을 교체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야영장 카라반을 입체적으로 배치해 회산백련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회산백련지에는 지난해부터 장애인우리와 갈비탕 등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 5곳이 운영되고 있다.

무안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부족한 먹거리를 보완하고 관광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자동차 야영장 전경. <무안군 제공>

영암도기박물관, 벚꽃축제 기간 30% 할인

영암도기박물관은 왕인문화축제가 열리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영암도기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암도기는 12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화도 시유도기인 구림도기(국가사적338호)의 역사성을 계승해 영암의 질 좋은 황토를 주원료로 제작하는 도기이다. 유약 또한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웰빙 도기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다기 및 반상기세트, 금채머그컵 등의 생활도기와 도예장인에 의해 수작업으로 제작된 구림도기 광구편병과 달항아리 등을 관람객

에게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영암도기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평소 영암도기에 관심이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영암도기를 소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우리 도기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물관은 축제기간 중 영암도기를 제작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장작가마를 이용한 소성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전통도기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5개 발전사 부유식 풍력산업협회 출범

산업 활성화 힘 모으기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5개 발전사와 일반기업, 신안군이 참여하는 협회가 출범했다.

신안군은 최근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 의장, 해상풍력 분야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신안부유식 풍력산업협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안부유식풍력산업협회는 회장사 OW코리아 ㈜5등 발전사와 5개 일반기업, 신안군이 참여

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흑산권역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과 어업인 수용성 확보, 계통연계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유식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실현으로 주민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어업인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